

교회 소식

예배

- 1. **수요예배**
8월 20일 수요예배는 요한계시록 강해로 드립니다.
- 1. **월요일 새벽(위성)예배 시간변경**
일시: 8월 4일 월요일부터
기준: 오전 5시 -> 변경: 오전 5시 30분

선교회 / 교회학교 / 부서

- 1. **청년부 여름 국내선교**
주제: "믿음을 따라 소망을 기다립니다."
일시: 8월 15일(금)~17일(주일)
장소: 순복음카페교회(강원도 원주)
- 2. **사랑부 여름 수련회**
주제: "함께하는 하나님, 함께하는 친구"
일시: 8월 16일(토)~17일(주일) / 장소: 양평체험마을, 교회
- 3. **매주일 권사중보기도회**
일시: 오전 9시, 11시 / 권사회실

안내

- 1. **성경대학 수강생 모집**
개강일: 9월 7일(주일) 오후 1시 30분~ 오후 3시
대상: 성경학교 졸업자 / 등록비 2만원(교재비 별도)
담당교역자에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2. **주일 교회 식당**
매주일 2부, 3부 예배후에만 운영됩니다.

모집

- 1. **웹시바 워십선교단 단원모집**
모임시간: 매주일 오후 1시 30분 / 유아유치부실
문의: 양하영 목사

후원 선교사 / 교회

- <후원 선교사> 베트남 김건홍 선교사
네팔 김진만 선교사
레바논 김중현 선교사
미얀마 배수현 선교사
- <후원 교회> 위례하늘교회_홍성필 목사

온 / 라 / 인 / 헌 / 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을 위하여
교회 헌금 계좌번호를 안내해드립니다.

국민은행 441501-01-491593

예금주 | 여의도순복음강동교회

예배와 교회 안내

주일예배

1부	오전 7시	대성전
2부	오전 9시	대성전
3부	오전 11시	대성전
4부(위성)	오후 1시	소성전
청년부	오후 1시	대성전

교회학교 주일예배

유아유치부	오전 11시	유아유치부 예배실
초등부	오전 11시	초등부 예배실
중고등부	오전 11시	중고등부 예배실
사랑부	오전 11시	사랑부 예배실

정기예배

새벽예배(월)	오전 5시 30분	대성전
새벽예배(화-금)	오전 5시	대성전
수요예배(위성)	오전 10시 10분	대성전
금요성령대망회	오후 8시 10분	대성전

유튜브 온라인 예배



<http://www.youtube.com/@yfgangdong>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하여 연결.

교 / 회 / 주 / 소

서울시 강동구 천중로 21길 11(구:천호동 300-1)
Tel.02-474-2021 Fax.02-484-2021

하 / 남 / 기 / 도 / 처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747 1층 123호

홈 / 페 / 이 / 지

<http://www.yfggangdong.com>

2025년 8월 17일

통 3권<제 33호>

주 보

담임목사 변성우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 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시므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창세기 26장 12-13절



주/일/예/배	*다같이	
경배와 찬양	다같이	
*말씀선포	사회자	시 95:1~3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다같이	찬송가 540장(통 219)
대표기도	1부	김경채 전도사
	2부	김영진 장로
	3부	김병환 장로
성경봉독	1 / 2 / 3부	단 10:12
찬 양	2부	호산나 찬양대
	3부	예루살렘 찬양대
설 교	1 / 2 / 3부	변성우 목사 “포기하지 말라”
	4부(위성)	이영훈 목사
결신기도	설교자	
헌금기도	1부	김승호 안수집사
	2부	전우청 안수집사
	3부	윤재선 집사
*광 고	사회자	
*찬 송	주기도문	찬송가 635장
*축 도	설교자	
*찬 양	사랑하는 자여	

금/요/성/령/대/망/회	8월 22일 오후 8시 10분		
설교	대표기도	헌금기도	
변성우 목사	문귀순 권사	임경린 안수집사	

예/배/위/원	8월 24일 주일 8월 29일 금요일			
예배	찬양대명	대표기도	헌금기도	
주일 1부	찬양팀	김해숙 전도사	이현식 안수집사	
주일 2부	호산나찬양대	송원홍 장로	임경린 안수집사	
주일 3부	예루살렘찬양대	김병환 장로	유정열 안수집사	
금요성령대만회	찬양팀	이화수 권사	안원준 집사	

“포기하지 말라”(다니엘 10장 12절)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바벨론 왕, 느브갓네살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때 포로로 잡혀간 귀족의 자제 중 일인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으로 잡혀가 왕궁에서 갈대아인의 언어와 학문을 배워 왕을 섬기는 일을 하였으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는 많은 대적들의 참소와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으나 오랫동안 바벨론의 총리로서 바벨론의 4명의 왕(느브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을 섬겼습니다. 그는 미래에 대한 환상을 보았고, 그가 유다의 해방과 회복을 위해 기도한 21일간의 기도는 지금까지도 응답받는 기도의 모델입니다.

1. 믿음의 사람 다니엘

다니엘은 유다 지파 자손으로서 왕족이나 귀족이었습니다. 그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사람으로 뽑혀서 자신의 뜻과는 상관 없이 청소년 시기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시대의 왕들(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다니엘이 잡혀갈 때의 유다는 ‘야훼 신앙’을 가진 자들을 찾아보기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야훼 신앙’을 갖고 있었고, 이것은 다니엘이 신앙교육을 잘 받은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잊고 사는 시대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과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은 각기 다른데,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후대에 전하며 믿음으로 모든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이기게 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믿음을 보면 그들이 청소년기까지 어떤 교육을 받으며 자랐는지 알 수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2. 기도의 사람 다니엘

믿음과 신앙은 기도를 동반합니다. 이 기도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도착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정기

적으로 기도했습니다(단 2:17~18, 6:10). 하나님은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자 굴에서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다니엘은 책을 통하여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는데, 70년의 포로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그치게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단 9:1~2). 깨달자마자 다니엘은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이 설명하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전쟁과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가브리엘의 설명을 듣고 난 후에는 절식하며 세 이레(21일)를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은 다니엘이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기도를 시작할 날) 들으시고 응답하셨지만, 다니엘에게 오는 하나님의 응답을 바사국에 21일 동안 막아서 지체되었는데, 가장 높은 천사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도와주어 다니엘은 21일 만에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3.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

다니엘의 삶과 그의 기도와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말씀을 마음에 담고, 믿음을 가지면, 어떤 상황과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평강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고,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정기적인 기도생활과 경건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성령님이 주시는 도움과 평안과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힘이 영성입니다. 다니엘처럼 기도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기도응답을 믿고, 소망하며, 기도를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여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도우시고, 말씀의 능력과 결과를 믿고 소망하게 하므로, 평강을 갖고 하나님을 기다리게 합니다.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고 소신있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해방과 회복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모든 분들과 교회 가운데 충만하길 기도합니다.